

Ssua Ssudai Chunam Tuma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a-e Messa 4월 호

contents

1. 4월 일정

3. 식목일

5. 시엠립 여행

7. 뿌어막 소개

2. 활동

4. 쫄츠남 행사

6. 일상

8. 에세이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투표하기 Atti day - 쿠키타임	사진 정리
3	4	5	6	7	8	9
교회 프싸 트마이(중앙 시장)	Atti Time (영어)	Atti Time (한국어) 식물심기 	쫄츠남 행사준비	까리따스 쫄츠남 행사	보고서 제출, 캄보디아 까리따스 쫄츠남행사	여행 준비
10	11	12	13	14	15	16
교회 이온몰	쫄츠남 - 시엠립 여행					 세월호 2주기, 사진 정리
17	18	19	20	21	22	23
교회	Atti Time (영어)	Atti Time (한국어)	Atti Time (영어)	Atti Time (한국어)	교회 청년부 MT	사진 정리, 교회 청년부 MT
24	25	26	27	28	29	30
교회	Atti Time (영어)	CDP 미팅, Atti Time (한국어)	Atti Time (영어)	CDP 활동 Atti Time (한국어)	CDP OT	보고서 쓰기

활동

CDP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YDP

Youth Development Program
영어시간 한국어시간

Atti Time

쿠키타임 페이스페인팅





우리는 품(공동체)에 가서 두 차례 농부님들과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를 소개하고, 각각 농부님들과 하게 될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라온아띠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의논하였다. CDP 매니저 병(연장자에게 붙이는 호칭) 꼬다이가 소통을 도와주어서 농부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CDP



필드에 가서 농부님을 도와 일했던 날,
병 써릿과 팽이로 작물을 심을 곳의 흙
을 고르고 고랑을 만들었다.

일하다 잠시 더위 식히는 중,
농부님이 주신 갓 따온 초록망고를 핸드
펌프로 끌어올린 물에 씻어서 현지식으
로 칠리소금 묻혀 남(먹다)

냘 스타이!(망고 먹으렴)
츄안~쭈아엠(맛있어요~새콤달콤해요)



CDP 피드백

가장 무덥다던 **쫄츠남** 이후로 꺾일줄 알았던 **더위**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요즘은 현지 캄보디아 사람들도 **덥다**고 한다. 또 건기라 비가 뜬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더 강수량이 없어 용수가 **부족**하다.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데다 **온도** 높은 나날이 지속되다 보니 있는 물도 말라서 강과 논이 수심은 점점 **얕아**지고 있다.

기후적인 문제에 우리 CDP활동은 **난관**봉착, 더위와 물부족으로 우리는 계획보다 필드에 많이 나가지 못했다. CDP활동도 활동이지만, 물이 부족해서 큰 일이다. 농부님들이 **걱정**된다.

YDP

Atti time - 영어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오 마이 프리티 프리티 보이~

멜로디를 타고 우리들의 마음이
리듬에 실린다.
부르기 쉬운 팝송부터 준비해 함
께 들어보고, 읽어보고, 불러본다.
생소하거나 어려운 단어, 표현들
을 소개하면서 영어시간은 진행
된다.



YDP 피드백

영어 시간

영어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 유스들 간의 **영어 이해도** 차이가 눈에 보인다. 내용을 알고있던 거라 지루해하는 유스들도 있고 단어를 읽을 때부터 모르는 유스들도 있다. **팝송**으로 진행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수준**을 나누지 않고 어려워하는 유스에게 맞춰서 하기로 하였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수업이 **처음**인 서툰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영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 이 활동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서로 언어가 달라 소통이 완전히 안 되는데 또 다른 언어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건지, 이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였는지 말이다. 유스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의도와 다르게 이 시간이 **수업**처럼 되어버리는 걸 보면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면 좋을까 고민한다.

돌아보면 영어시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온 거 같다. YDP 담당 매니저인 병 탄은 영어시간에 대해 **쉐어링** 하면서 시간을 진행해보 라며 팁을 주셨다. 오늘도 여전히 더 나은 영어시간을 위해 **하루하루** 또 도전하는 중이다.

YDP

Atti time - 한국어

으...그...느...드..... 아..어...

국내 훈련할 때 배운 방식을 조금 사용하여 진행한 한국어 시간.
솔직히 수원에서 처음 한국어 교육을 접했을 때는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니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유스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원활하게 한국어 시간이 진행되었다.



YDP 피드백

한국어 시간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 항상 잘 진행했지만, 너무 더운 날씨와 환경 때문에 매번 수업을 미루게 되어 아쉬운 것 같다.

유스들도 생각보다 한국어 수업을 더 원하는게 보여서 좀 더 수업하는 빈도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tti Time

쿠킹타임



4월1일에 첫 쿠킹타임을 진행하였다. 메뉴는 맛탕과 산적.
 공간 부족으로 맛탕은 집에서 만들어가고, 산적은 유스들과 만들었다.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 우리 위주로 진행될까 걱정했지만 유스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의 유스들의 손에서 음식들이 완성되었다. 맛은 당연 😊
 음식이 부족했다.



Atti Time

쿠키타임

유스들이 생각보다 **잘 먹었다**.
처음엔 맛을 보다가 모두가 굵고 난 직후 바로 **바로** 먹어서, 앉아서 먹기 전에 없어져 버렸다 🤔 (조금밖에 못 먹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다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그렇지만, 함께 만들려고 했던 의도랑 잘 맞게 유스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좋았다.
준비과정부터 자발적으로 도와주던 유스들부터 설거지를 도맡아 했던 유스들까지 함께라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니 ㅎ 츠무어 산적, 증안 떼?
(이거 이름은 산적이야, 맛있어?)
산적? 증안~ (맛있어~)



Atti Time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이 집으로 많이 놀러온 어느 날 오후, 사오피아(주혜)와 티다(다희)는 물감을 꺼냈다.

이쳐~크눔 아니 뽀아 끄러힘
(티쳐~저는 이거 빨간색으로!)

Atti Time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씩 들고 무언가 그려 달라고 하는 아이들 😊
처음엔 준비한 간단한 그림들을 그려주었다. 아이들은 좀 지켜보더니 무언가 그려달
라고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중에 찾아보고야 알았던 단어들, 다음엔 더 다양한 그림을 준비해야겠다.

식목일



4월 5일 식목일은 맞아 수원Y에서 배운 에코 가드닝을 활용하여 각자 식물을 심었다. 기존에 배웠던 방식인 페트병 안에 심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낸 코코넛 속을 파내어 그 안에 식물을 심었다.



Neak(제민)의 '이유비♡'

Tida(다희)의 '장인장'

Dara(지환)의 'ekko'

Saophea(주혜)의 '프까'와 '축'



즐거움 행사

즐거움의 의미란?~

명절을 즐긴다.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 보통 이주도
 세 번 보낸다. 캄보디아 최대의 명절이자
 은개념이다. (캄보디아는 새해 명절은
 캄보디아의 새해로 우리나라의 구정 같



쫄츠남 행사

유스들과 함께 하는 쫄츠남 행사 준비

행사 때 먹을 음식들은 우리가 직. 접. 유스들과 함께 만들었다.
심지어 **고추장**까지...

중간중간에 쉴 때는 요리하고 남은 코코넛 껍데기로 '코코넛 댄스'(캄보디아 춤)를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쫄츠남 행사

까리따스 쫄츠남 행사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

우선 형식적인 까리따스 행사를
끝낸 뒤,
(캄보디아어로 진행된 행사..못
알아 들음ㅠㅠ)



폴츠남 행사

까리따스 폴츠남 행사



.. 전에 우선 먹기 부터



입으로 물 옮기기,
눈 가리고 바나나 먹여주기 등
여러가지 게임을 하고

쫄츠남 행사

까리따스 쫄츠남 행사



그리고 마무리는 유스 '비싸이'의 생일파티로 마무리... 되는 줄 알았더니 그 후 밤새 춤을 추며 놀았더라고 한다!



베이비파우더와 사탕을 넣은 향아리를 깨뜨리는 전통놀이도하고 계속 계속 춤추며 놀았다.



즐츠남 행사

메콩강 보트 파티



'까리따스 간달'에서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 날,
우리는 '까리따스 프놈펜'(헤드 오피스)과 함께 **메콩강 보트** 위에서 음식을 먹으며
강바람을 즐겼다.

즐거움 행사

메콩강 보트 파티



또 춤추고 먹고 춤추고 먹고
춤추고 먹고....

완전 행복했다.





시엠립 여행

여행 일정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자이언트로 출발 (6시간) 숙소 도착 펍 스트리트	앙코르툼 짚라인 펍 스트리트	앙코르왓 따 프롬 스라스랑 뚝레삽 호수 펍 스트리트	민속촌 펍 스트리트	집으로 출발 자이언트로 이동 (6시간)

쫄츠남 기간에 우리는 시엠립으로 여행을 갔다.
캄보디아 최대의 유적지인 앙코르왓을 중심으로
시엠립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정말 더운 기간이라더니 최고의 뜨거운 여행이었다.



11일과 15일은
이동 시간임으로
PASS!



← ○ 앙코르 톰



5개 나무 사이
4코스의 라인을
건넌던
흥미진진한 시간



짚 라인 ○ →



← ○ 펍 스트리트



← 앙코르 왓



따 프롬 →



← 스라스랑

돈레삼 호수 →





← 민속촌



이름 모를 곳들 →



평창남 기간에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거나 물총 놀이를 하는 캠프 디아 문화가 있다. 이날 우리는 물총을 맞고 베이비 파우더가 가득한 거리를 누볐다.



← 펍 스트리트



Remember..20140416

RaonAtti



일상

레이닝 크니어
(함께 놀다)

남 아이스크림

오늘의 청소당번

4월 아띠살롱

일상컷



일상

아이들이랑 레잉(놀다)

우리동네 아이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논다. 아띠들을 발견하면 "헬로~" 크게 인사한다.
그리곤 달려오기 시작!
놀고 있는 아이들 틈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놀게 된다.
반갑게 맞아주는 우리 아이들이 참 좋다.



RaonAtti



일상

유스들이랑 레잉(놀다)

어렸을 때 동네 앞에서 놀았던 것처럼 유스들은 함께 모여서 여러 게임을 하며 논다. 아띠들도 유스들과 종종 함께 놀곤하는데, 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뛰노는 유스들 체력에 감탄한다. 마음은 항상 같이 놀고 싶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일상

남 아이스크림

띠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리~

어! 아이스크림 차다!



일상

오늘의 청소당번

우리는 저녁 먹은 뒤 8시쯤, 청소를 한다. 쓸기, 바닥닦기, 손걸레, 쓰레기버리기를 하는데, 당번은 가위 바위보나 게임으로 정해진다.

깨끗하게 쓱쓱!



일상

4월 아띠살롱



염색부터 머리 자르기와 왁스
 묻이고 손질까지..
 미용사 못지 않은 티다(다희)
 의 손길 😊



일상

일상컷

RaonAtti



백어막 쓰기



Dara (지환) 의 백어막



'사몬'

쫄츠남 행사 준비로 고추장 만들 때 친해졌다. 말은 잘 안통하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다. 사진에는 잘 안담기지만 배우 김유정 얼굴이 조금 보인다.

Tida(타희)의 뽀어막



나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는 우리 이여이!)

이번에 소개할 나의 뽀어막은 우리를 위해 집을 내어주신 할머니이자, 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주시는 분.

뭐 먹을 것이 생기면 "티다, 먹어봐"라고 하시면서 맨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말할 때도 항상 나만 찾으시는 할머니.

저녁에 잠깐 산책을 나가면 티다 어디갔냐고 찾으시는 우리 할머니.

팀원들은 조금의 질투(?)를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나를 불러주실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다.

앞으로도 나의 이름을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Neak(케민) 의 백어막

긴 말이 필요 없는
마이 브라더 '지헤인'

까리따스 멘탈프로그램의 학생인데
매일 까리따스 센터를 돌아다니는 것
빼고 어떤 교육이나 관리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

돌을 던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나
를 말리고, 툭툭이 지나간다고 길 안
쪽으로 피하라고 소리치는 매너남이다.
현재 까리따스에서 춤을 제일 잘 추는
친구이기도 하다.

먹을 것으로 밀당을 너무나도 능숙하
게 하고, 여자를 너무 밝히는게 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나만이 브
라더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o^



Saophea (즉혜)의 백어막



내 친구 '썸반'을 소개합니다

썸반을 처음 만난건 까리따스다.

뭔가 익숙한 얼굴, 알고보니 전 기수 보고서에 자주 등장했던 유스 출신의 스텝이었다.

라운아띠가 익숙한 썸반은 우리에게 먼저 장난을 걸곤 했다.

썸반은 제정 담당 스텝인데 원래 제정을 총괄하던 매니저 사포안이 출산휴가를 가면서 썸반이 일을 모두 인수인계 받아서 하는 중이라 요즘은 바쁘다.

처음 우리 팀 제정 담당을 내가 해서 썸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다.

집이 시엠립 근처라 멀어서 혼자 자취하는 외로운 청년인 썸반, 다음 번에 우리 저녁 식사에 초대할까 한다.

4월 에 씨 이



"Saophea"의 4월 이야기

내 생애 가장 뜨거웠던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놀고 정말 잘 놀았다.

문득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추억할 것 같은 생각에 또 입가에 웃음이 일렁인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뜨거웠던 이 곳, 웃음소리가 가득한 내 귀, 예쁘고 싱그러웠던 23살 4월의 여름..한국이었다면 느끼지 못할 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함을 느끼곤 한다.

노는 날이 많은 이번 달이지만 활동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고 얘기했었다. 이곳에 무얼 하러 온 건지 무얼 해야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

혼자가 아닌 것을 보면서 또 혼자로서의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나를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로 어우러질 뜨거운 다음 달도 기대된다.



내 생애 가장 긴 여름 2


나의 두번째 에세이.

3월에는 행복하고 좋았던 것들만 있었다면 4월은 정말 무덥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원래 잠을 잘 자는 편은 아니지만 4월은 유난히 잠을 더 못잤던 것 같다. 날씨 탓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몰라도 사람이 이렇게 잠을 못자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하루에 3시간, 3시간반 자고 생활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다. 날씨가 더워서 힘들데 심지어 방 화장실이 고장나 물이 자꾸 넘쳐 냄새가 나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한달이었다.

하지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에겐 팀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었다. 잠을 못자면 같이 영화를 봐주는 팀원이 있었고, 날씨가 더우면 같이 선풍기를 쬐는 팀원들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가 내 옆에 항상 있다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한 한달이었다.



A young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lack wide-brimmed hat, a green and black plaid shirt, and light blue shorts, is sitting on a large, gnarled tree branch. He is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and making a peace sign with his right hand. A camera is hanging from his neck. The background is a dense forest with many trees, some with bare branches and others with green leaves. The lighting is natural, suggesting daytime.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받고 배우며, 고마움을 조금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고,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Neak



캄보디아에는 계절이 없는 줄 알았다. 항상 여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에도 계절이 있었고, 4월은 하필 여름이었다. 기온은 44도까지 치솟았고, 옆친데 덮친겁으로 나는 앙코르 와트 여행 중에 다쳐버렸다. 하루에 몇 번을 씻어도 버티기 힘든 날씨에 양 손바닥과 팔꿈치 무릎의 살이 다 벗겨져버려 씻지도 못한 채 몇 일을 버텼다. 너무 힘들었다. 팀원들이 내 뒤통의 빨래, 설거지, 청소 심지어 세수까지 도와줬지만, 나는 거기에 미안하고 고마워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제 거의 절반을 산 시점인데 부정적인 생각만 너무 들어서 아쉽다. 다른 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전부 너무 행복하다고만 한다. 이 전 기수들도 최종보고회때 행복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면 나도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앞으로 남은 3개월을 잘 보내 라온아띠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Dara(지환)

Som Ukkun Ggran!

(감사합니다)



현 집 - Dara(지 황)
Saophea(즉 혜)